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새로 건설된 치과위생용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치과위생용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일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건설정형을 수시로 료해하시고 공사가 마감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현대적인 치과위생용품생산설비들을 일식으로 마련해주시는 하늘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아담하고 정갈한 치과위생용품공장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멋쟁이공장이 또 하나 일떠섰다고, 위생용품생산기지의 체모에 맞게 외벽을 흰색과 녹색타일로 처리하니 보기에 좋고 산뜻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생산공정과 조감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통합생산지령실, 치약생산공정, 함수약생산공정, 치과위생용품생산공정, 분석실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품질관리, 전력관리, 환경관리, 고장진단을 비롯한 모든 생산공정의 감시 및 자동조종체계를 잘 세워놓았다고 하시면서 통합생산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해놓은 결과 생산지휘와 경영활동을 과학적으로, 립체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사출기, 6색인쇄기, 제판기, 어께사출기 등을 거쳐 생산된 치약관들에 원료배합장에서 진공배합되어 숙성된 치약이 자동주입되고 봉합된 다음 개별팩포장과 지합포장되어 제품창고로 입고되는 치약생산공정이 현대적이라고 하시였다.

약제와 정수, 향료 등을 가지고 만드는 함수약생산공정과 사출, 성형, 세척으



로 이루어진 함수약병생산공정의 자동화 수준이 대단히 높다고 하시면서 함수액이 담겨진 용기들이 건조기에 들어갔다 자동적으로 상표가 붙여진 다음 열수축포장 또는 지합포장되는것이 불만 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각종 치간실과 솔이 달린 이쑤시개들, 틀이세척솔, 혀크게, 혀솔 등을 생산하는 치과위생용품생산공정도 아주 잘 꾸려놓았다고 하시면서 제품들의 질도 괜찮다고 기뻐하시였다.

태양빛전지판과 태양열물가열기를 설치하여 조명도 보장하고 편의시설들에서 더운물을 쓰고있으며 지열에 의한 냉난방체제로 실내온도를 보장하고있는데 자연에너지를 적극 리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이 관철된 공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치과위생용품

공장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는 공장, 자신께서 대단히 중시하는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위생용, 치료용으로 리용할수 있는 여러가지 치약과 함수약, 이몸과 이발형태에 따르는 치솔을 비롯한 치과위생용품의 가지수를 더 많이 늘일데 대한 문제, 치과위생용품을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하는 과학자, 기술자들로 연구집단을 튼튼히 꾸리고 조건보장을 잘해줄데 대한 문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도록 원료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울데 대한 문제, 생산환경과 생산공정의 무균화, 무진화, 무인화를 더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나갈데 대한 문제,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최대한 높이며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고 시설물들을 애호관리할데 대한 문제 등 공장의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예로부터 이발이 든든한것을 오복의 하나라고 하였는데 현대적인 치과위생용품공장을 새로 건설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여러가지 질 좋은 치과위생용품을 안겨주려던 소원을 풀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의 무병장수를 위한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고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치과위생용품공장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질 좋은 치과위생용품을 인민들에게 떨구지 말고 보장해주어 인민들이 그 덕을 단단히 보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자신께서 모두 풀어주시겠다고, 결린 문제가 있으면 제때에 보고하라는 은정

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해 당에서는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실지 폐부로 절감하면서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치과위생용품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항상 명심하고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투쟁에 힘과 열정, 지혜를 아낌없이 바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67년전 6월과 오늘

6월 25일은 미제가 이 땅에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 때로부터 67년이 되는 날이다. 해마다 이날은 오지만 미국의 침략 책동으로 조선반도정세가 최대한 긴장한 지금 그때의 조선전쟁을 더구나 되새겨보게 되는 우리 겨레이다.

미국이 조선전쟁의 불을 지른 것은 청소한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고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막대한 전쟁리움을 짜내고 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 등장한 미국은 《세계지도에 대한 책임》을 공공연히 떠들면서 패망한 일제를 대신하여 아시아지역에서 지배자로 군림하려고 책동하였다. 거기에는 제2차세계대전후 미국경제가 또다시 심각한 경제공황의 위기에 빠지게 되자 위기의 출로를 침략과 약탈에서 찾는 버릇이 된 미국은 새로운 전쟁도발의 무대로 조선반도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하여 남조선에 잠정적인 초기에 《국방사령부》를 내오고 남조선군병력을 짧은 기간에 10만명의 상비군과 20만명의 예비군으로 늘였으며 전쟁전 3년 사이에 막대한 군사원조를 제공하는 한편 북침전쟁도발을 위하여 1947년부터 전쟁도발직전까지 38° 선에서 연 5 150여차례 걸치는 무장도발을 감행하였다.

전쟁을 며칠 앞둔 1950년 6월 19일 남조선의 《국회》개원식에 나타난 미국대통령 특사 델레스는 《나는 이번엔 북진준비상태를 직접 보고 준비에서 부족점이 없다면 곧 북진을 단행하라는 트루먼대통령의 명령을 가지고 왔다. 와서 보니 준비는 만족하다. ... 준비가 된

이상 북진을 하라도 늦출 필요가 없다.》고 떠벌이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사람들이 다 자는 새벽에 침략의 무리들은 이 땅에 전쟁의 불을 달았다.

하여 평화와 새 조국건설의 노래소리 드높던 공화국땅에 불구름이 휘몰아치고 신성한 강토와 수천수만의 생명들이 가슴아픈 엄청난 재난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세계는 조선의 운명을 두고 우려를 금치 못하였다. 오만방자한 침략의 무리들은 조선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면서 아침은 해 주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게 될 것이라고 호언하였다. 그러나 침략자들은 어리석었고 오산하였다.

전쟁이 개시되어 며칠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현대전의 빛나는 모범인 대전포위작전이 성과적으로 계속되어 놈들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바빠난 미제는 유엔을 내세워 십여개의 추종국군대를 끌어들이는가 하면 세군단과 각종 화학무기들을 사용하다 못해 원자탄까지 투하하려고 책동하였다. 그런가하면 《하기공세》, 《추기공세》, 《신공세》 따위들을 만들어 저들의 패배를 만회해보려고 발악하였지만 언제나 패배를 면치 못하였다.

조선인민군의 무자비한 타격에 바다에서는 미제침략군 중순양함이 통쾌하게 수장되고 하늘에서는 《공중우세》를 자랑하던 공중비행기들이 죽음의 천길낙타로 떨어졌으며 땅에서는 《상승》사단들이

피멸되었다.

3년간에 걸친 전쟁에서 쓰디쓴 참패만을 거듭한 미제는 결국 정전협정의 수치스러운 항복문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고는 조선전쟁이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고른 《적》과 싸운 잘못된 전쟁이었다고 비명을 질렀다.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공화국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는 군사적기적을 이룩할 수 있는것은 바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령도를 받게 있으며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기의 충도를 목숨바쳐 지키려는 전체 인민의 조국수호결사의지와 대중적영웅주의가 있었기때문이다.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을 정의의 전쟁으로 불러일으킨 그이께서는 비범한 군사적지략으로 전쟁의 매 단계마다 독창적인 전법, 비상한 령군술로 침략세력에게 단호하고 무자비한 섬멸적타격을 가하도록 하시었다.

쁘르뚜갈 전 대통령 고메스는 조국해방전쟁에 대한 자기의 소감을 피력하면서 당시 미국이 만든 작전계획은 미국편에 선 서방나라들의 참모장들, 군사전문가들인 수십명의 장성들이 여러차례 모여 작성한것이다. 그런데 김일성장군은 그것을 단독으로 격파하시었다. 그분이시야말로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위대한 령장이시라는것을 알게 되었다고 존경과 흠모

심을 더놓았다.

그때로부터 어언 67년이 지난 오늘의 정세는 지난 조선전쟁전야를 방불케 하고있다. 패배의 쓰디쓴 교훈을 망각한 미국이 또다시 침략야망을 드러내며 전쟁불구름을 몰아오고있는것이다.

새로 발족한 트럼프행정부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조선압살정책을 내놓고 《신제타격》을 운운하며 남조선과 그 주변해역에 핵전략폭격기, 핵항공모함, 핵잠수함들을 뚝대어 급파하여 전쟁위기를 령대고 고조시키고있다. 며칠전에도 전략폭격기 《B-1B》편대를 끌어들이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남조선공군 《F-15K》 전투기들과 함께 모의폭격훈련을 벌여놓았다.

이것은 미국이 이 땅에 기어 침략의 불을 질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호전광들은 오산하고 있다. 오늘 공화국의 위력은 지난 조선전쟁때와는 너무도 다르다.

지난 조선전쟁때 공화국은 핵무기를 들고 달려드는 침략세력과 총으로 맞서싸워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오늘 자주와 정의의 보루인 공화국은 수소탄을 비롯하여 각종 핵탄과 핵라격수단들을 다 갖춘 동방의 핵강국, 로켓트름주적으로 위력을 떨치고있다.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알아봐 침략전쟁의 불을 질렀던 미국이 오늘에 와서는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핵무기위력에 련일 공포의 비명을 지

르며 본토방어준비를 하느라 소동을 피우고있다.

오늘 공화국이 벌리는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과 반미최후대결전의 진두에는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그이는 조선민족이 낳은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시며 위인중의 위인이다.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오늘 공화국은 자주와 존엄으로 더욱 빛나고 핵강국의 위력을 높이 떨쳐가고있다.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더욱 높이 들고나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탁월한 병진로선을 제시하시고 경제건설과 함께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방력강화에 큰 힘을 넣어오시었다. 그이께서는 올해에만도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 로켓 《화성-12》 형시험발사,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 탄 《북극성-2》 형시험발사를 비롯하여 새로운 주체 무기들의 개발과 완성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나라의 핵무력강화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룩되게 하시었다.

얼마전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군력강화를 위한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하시면서 미국이 부질없는 거 거망동으로 우리 공화국을 서

빨리 건드린다면 사상최대의 재앙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하시면서 미분토와 태평양작전지대가 우리의 타격권안에 들어 있다는 현실, 섬멸적보복타격의 온갖 강력한 수단이 우리

의 수중에 있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도, 오관해서도 안된다 고 강력히 경고하시었다. 그날의 원수님의 음성은 67년전 6월 침략의 대무력이 달려들던 위급한 속에서도 호탕하게 웃으시며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알기를 우습게 안다고, 승냥이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과 같이 조선사람을 몰라보고 덤비는 놈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던 위대한 주석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 그대로였다.

력사는 결코 고칠수도, 숨길 수도, 지어낼수도 없다. 역사적으로 된때를 맞고 녹아나기만 한것이 미제의 수치스러운 전통이고 미국을 걸음마다 통쾌하게 축 쳐대기만 한것이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이 어길수 없는 법칙적인 두 전통은 앞으로 영원히 흐르게 될것이다.

적대세력이 원하고 령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 작전, 전투에도 대응하고 상용무력에 의한 전쟁, 핵전쟁을 포함한 그 어떤 전쟁에도 대응할 만단의 준비가 다 되어있다는 것이 조국수호정신이 내재하는 조선의 의지이고 대답이다.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패전의 쓰디쓴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무모한 불질을 한다면 자위의 핵억제력에 의해 미국땅이 통째로 불바다에 잠기고 아메리카제국은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될것이다.

어제가 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이 없는 래일이 있을수 없다.

6.25의 뒤에 7.27이 있듯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공화국은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최후승리의 그날을 반드시 안아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전승열병식광장에서 보무당당히 행진해가는 인민군장병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탄생 105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최근 공화국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하늘같은 은정속에 치과위생용품공장이 새로 일떠섰다.

그 공장은 위생용, 치료용으로 리용할수 있는 여러가지 치약과 합수약, 이몸과 이발형태에 따르는 치술을 비롯한 치과위생용품들을 생산하는 능력이 큰 치과위생용품종합생산기지이다.

며칠전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예로부터 이발이 든든한것을 오복의 하나라고 하였는데 현대적인 치과위생용품공장을 새로 건설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여러가지 질 좋은 치과위생 용품을 안겨주려던 소원을 풀게 되었다고, 인민들의 무병장수를 위한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고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말씀하시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건강을 증진하는데로부터 오복의 하나로 든든한 이발을 꼽으면서 정월대보름날에 굳은 음식을 깨물면 이발이 든든해진다고 하였고 이발과 관련된 속담

도 즐겨 사용하여왔다. 이발이 든든하여야 음식을 잘 소화시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수 있는것이어서 이발의 보호관리는 사람의 육체적 및 정신적활동을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된다.

지금으로부터 16년전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인민들이 리용하는 치술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치술생산을 위한 현대적인 설비보장으로부터 치술의

상표이름에 이르기까지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인위천의 숭고한 뜻을 이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들의 구강병 치료를 위하여 문수지구에 현

대적인 류경치과병원을 일떠세워주시었다.

3년전 이 병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환자들을 보시고 어디가 아픈가고 물어도 주시며 의들에게 치료를 잘해주라고 이르시었고 궁전같은 병원에서 돈 한푼 내지 않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올리는 로인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건강하라고 정을 담

아 말씀도 하시었다. 병원이 개원된지 얼마 되지 않지만 인민들속에서 대단한 호평을 받고있다는 일군들의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당에서 류경치과병원을 일떠세운것은 세계적수준의 구강병원

이 있다는것을 소개선전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만복을 누리게 하자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치료사업의 정보화실현과 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신께서 모두 풀어주시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지금도 류경치과병원으로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을

가슴뜨겁게 느끼고있다. 하나를 주시면 열, 백을 더 주고싶어 하시는 위대한 아버이의 크나큰 사랑속에 오늘은 인민들에게 질 좋은 치과위생용품들이 차례질수 있게 된것이다. 사실 사람들은 그만하면 팬

시고 현지를 찾으시여서는 치과위생용품들을 더 잘 만들수 있도록 전문가이상으로, 친부모의 심정으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신것이다.

치과위생용품공장은 자신께서 대단히 중시하는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의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살아야 할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고 인민들이 질 좋은 치과위생용품의 덕을 단단히 보게 해야 한다고 하시며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자신께서 모두 풀어주시겠다고, 걸린 문제가 있으면 제때에 보고하라고 하신 원수님이시다.

인민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애민헌신속에 사람들은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을 페부로 절감하면서 행복복한 삶을 향유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철진

인민사랑이 낳은 또 하나의 혜택

승고한 민족애와 동포애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심장으로 부르며

발전소를 세우고 주력을 짓는 건설장이나 기계동음이 울리는 공장들에서 그리고 교정들에서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며 힘을 얻고 여가시간에도 노래를 부르며 휴식을 즐긴다.

누구나 즐겨 부르는 노래는 《남산의 푸른 소나무》이다. TV방송이나 소리방송에서도 나오는 시대의 진군가이고 주제가이기도 한 이 노래를 대할 때면 한 해외동포의 얼굴이 떠오르곤 한다.

조국통일상 수상자인 전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 회장 채종만동포이다.

그는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무척 사랑하였다. 그에게서 이 노래는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동반자였다.

《나는 남산의 푸른 소나무처럼 민족의 넋과 기상을 소중히 안고 고국산야에 무성한 소나무숲에 서있는 한그루의 소나무, 애국의 소나무로 한생을 살겠다.》

생전에 채종만동포가 한 말이다.

그는 고국을 방문하면 늘 만경대를 찾곤 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탄생하시어 어린 시절을 보내신 고향집을 돌아보며 그는 주석님의 일가분들이 대대로 나라의 독립과 부강번영을 위하여 심신을 강고히 바치신 데 대하여 눈물겹게 실감하였다. 일제에게 나라가 짓밟혔던 세월 주석님의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반일독립투쟁의 결심과 의지를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피력하시고 천신만고를 달계 여기시며 애국투쟁을 벌리신 사실에서 채종만동포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김형직선생님의 뜻을 이어 위대한 주석님께서서는 10대의 어린 나이에 애국의 길에 나서시어 일제를 타승하고 기어이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신 것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만경대일가분들의 애국정신을 받들어 고국땅에 자주로 존엄 높고 자립으로 흥하고 자위로 강대한 사회주의국가건설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계시는 것이었다.

민족을 위한 만경대일가분들의 승고한 뜻과 희생정신은 자자구구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그대로 담겨져 있었다.

뼈가 부서지고 가루가 될지 언정 나라의 독립을 위한 투쟁의 한길에서 굴함없이 싸우겠다는 결사의 뜻을 품고 력사의 새벽길을 헤치시었으며 대를 이어 민족자주위업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만경대일가분들의 성스러운 투쟁업적을 떠나 고국의 눈부신 현실도 해외동포들의 운명도 생각할수 없는 것이었다.

채종만동포자신이 그러하였다. 그는 1934년 6살 어린 나이에 일제의 학정하에 더는 살수가 없어 고향인 강원평 문천을 떠난 선친들의 손에 이끌려 로씨야의 짜할린으로 이주한 해외동포2세였다.

이역땅에서 나라없는 민족의 설움을 뼈에 사무치게 체험한 그것기에 위대한 주석님께서 찾아주신 고국은 마음의 기둥이 되고 희망의 등대였다. 구름떼 흐르는 하늘을 보아도 공화국의 하늘이 그리웠고 바다가 거닐어도 갈매기 깃을 차는 고향의 해변가를 그리웠다.

하여 그는 오메불망 그림그리던 고국을 래왕하게 되었고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길에 삶의 좌표를 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민족이 홀어지게 된 천대만상의 사연이나 리유에는 관계 없이 해외동포들이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인 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 살아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는 위대한 주석님과 장군님께서서는 대해같은 믿음과 은총으로 그가 민족의 일원으로서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이끌어주시고 보살펴주시었다.

1973년 9월 고국을 방문한 그를 만나신 위대한 주석님께서서는 조국의 부강발전과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해외에서 수고 많았다고 하시면서 그의 애국적소행을 높이 치하하시었다. 그후에도 여러차례 채종만동포를 만나신 주석님께서서는 민족의 넋과 애국적정신을 가지고 고국의 번영과 통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의 진정을 헤아려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었다. 그와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으시고 은정깊은 선물도 배려해주신 주석님이시었다.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채종만동포가 생일 일흔흔을 맞을 때에는 그에게 친히 선물을 보내시고 건강장수를 축복하시었다.

위대한 주석님과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그는 동포대중속에 절세위인들

의 주체사상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건설사상과 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있게 체득시키기 위한 해외공민학습소를 운영하였고 고국의 사회주의건설에 몰심량면으로 되는 지성을 다하였다.

그는 힘에 부치고 발걸음이 떠질 때면 위대한 수령님들의 가르치심에서 새힘과 용기를 가다듬었고 가보로 소장하고있는 수예작품 《만경대고향집》에 어려오는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생각하며 동포들속에 몸을 잠그었다.

재로동포들은 지금도 유즈노 짜할린스크, 홈스크, 레벨스크... 이렇게 짜할린지방을 종횡무진하며 조국의 번영과 통일을 위한 애국활동으로 온몸을 바치던 불같은 열정의 인간, 순결한 량심의 인간 채종만동포를 추억하고있다. 몸은 비록 이국만리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조국과 숲결을 함께 한 그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민족의 아버지로, 동일의 구성으로 따르고 받들며 만경대일가분들의 애국의 넋과 기상이 어린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심장으로 부르며 애국의 길에 삶의 자욱을 남긴 채종만동포이다. 그는 열다섯해전에 70고령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채종만동포는 오늘 공화국 인민들속에서 심장의 노래로, 신념의 메아리로 높이 울리고 있는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일생을 마칠 때까지 열

렬히 애송하며 애국의 한길을 걸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는 혁명의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하다고 하여도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사상과 정신을 심장에 새기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뿌리가 든든한 나무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고, 우리 공화국은 절세위인들이 마련해

주신 위대한 전통과 위업을 가지고있어 그 뿌리가 든든하다고 한 채종만동포가 살아있다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더 높이 부르며 애국의 한길을 가고갈것이다.

참으로 만경대가문의 애국정신과 애국, 애족을 삶과 투쟁의 본령으로 삼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선의 넋으로 살며 민족자주정신이 차넘치는 조국과 운명을 함께 하도록 이끌어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믿음과 사랑속에서 채종만동포는 《남산의 푸른 소나무》처럼 변치 않는 한모습으로 살았다.

본사기자 리 설



위력한 주체무기개발을 틀어쥐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지니고계시는 뛰어난 정치가이시다.

그이께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 위치를 현저하게 하실 때면 수행하는 일군들이나 가르치심을 받는 해당 부문의 전문가, 기술자들도 두가 풍부한 식견에 매혹되고 탄복한다고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국방과 학분야에도 전문가 이상의 식견을 지니고계신다. 다발적으로 개발되고있는 위력한 주체탄들은 그이의 로고와 지도속에 마련된 무기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 5월 군수공업부문에서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새롭게 설계착상하고 연구완성한 지상대시상중거리지탄탄도르케트 《화성-12》형 시험발사를 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요란한 폭음과 함께 시뮬레이션 불꽃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날아오른 탄도르케트의 시험발사결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시험발사의 대성공을 기뻐하시었다. 그 순간 발사장에서는 우렁찬 만세의 환호가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에워싸고 모두가 한덩어리가 되어

목청껏 환호를 터치는 과학자, 군인들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이 흘린 감격과 환희의 눈물은 자기들과 함께 무수한 낮과 밤을 보내시며 성공으로 이끄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의 분출이다. 국가방위를 위한 다종다양한 핵공격수단, 전략무기개발을 구상하시고 천체적인 과학적예지와 결출한 정도로 그 실현을 위한 창조적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이다.

또 시험발사를 앞두고 로케트총조립전투현장을 찾으며 시험준비과정을 직접 지도하시면서 과학자, 기술자들을 고무해주고 발사당 일에는 로케트시험발사장에 나오시어 시험발사를 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이다.

지쳐 주저앉을세라 실패에 위축되어 맥을 놓을세라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정녕 국광과학분야의 과학자, 기술자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 위대한 스승, 자애로운 아버지이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보좌하시던 나날 국방과학분야에 대한 해박한 식견도 소유하시었다.

몇년전 남조선의 한 언론은 《김정은최고사령관의 연설모습만 봐도 언어적사고력이 매우 높으심을 짐작할수 있다. 여기에 현대 과학기술과 예술, 체육에도 조예가 깊으시다고 하니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다방면적인 천재이라고 한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것 같다.》고 하였고 세계언론들은 앞을 다투어 《누구도 따를수 없는 천재적예지와 지략을 지

닌 군사적 영재》, 《현대군사과학과 기술에 정통한 천재》, 《젊은 나이이지만 능력있는 김정은지도자》라고 격찬하였다.

이렇듯 영명하신 령도자료를 모시였기에 공화국의 하늘과 우주로는 신형지상대해상순항로케트, 신형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 지상대시상중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2》형과 같은 주체탄들이 날아올라 자랑찬 비행운을 새기였다.

이것은 만리마대진군을 다그쳐나가고있는 공화국의 천만군민에게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었고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에게는 불안과 공포를 더해주었다.

주체무기의 퇴성이 다발적으로,련발적으로 울리며 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안아오고있는것은 공화국의 주체적로케트무력강화와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완성을 위하여 위대한 사색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아오신 자랑찬 결실이다.

세계언론들은 공화국의 로케트개발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전면적으로 발전하고있다고 하면서 조선의 최고령도자는 거의 모든 신형로케트시험발사과정을 직접 지휘하고계신다고, 그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선진적인 로케트개발에서 공화국이 련이 승리할 거두고있는 기본요인으로 된다고 공인하고 있다.

이렇듯 문무를 겸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령도가 있어 오늘 공화국은 명실상부한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케트맹주국으로 자기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은 민족번영의 확고한 담보

공화국의 력사는 절세위인들의 령도밑에 민족자주위업수행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하여온 력사이다.

일찌기 민족자주위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조선혁명에 그 누구의 승인이나 도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선인민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체의 힘으로 하여야 한다는 자주적선을 확고히 틀어쥐시고 일제를 반대하는 항일무장투쟁을 조직 령도하시어 조국해방의 력사적 위업을 성취하시었다. 위대한 주석님의 령도밑에 공화국은 해방후 새 조국건설과 조국해방전쟁 그리고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건설을 비롯한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하고 구현하여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을 일떠세웠다. 위대한 주석님의 사상과 령도를 그대로 이으신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를 받들어 공화국은 미국과 제국주의련합세력이 벌린 핵전쟁도 발책동과 전대미문의 제재와 봉쇄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리고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하였으며 공화국의 국력과 지위를 비상히 강화하였다.

한없이 승고한 민족애를 지니신 위대한 주석님과 장군님께서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적극 살리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시었다. 민족자주정신과 민족애에 기초한 전민족대단결의 통일대강이 마련되고 6.15통일시대가 펼쳐진것은 절세의 위인들의 령도밑에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공화국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이다. 공화국이 걸어온 전 로정은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고수할 때 민족의 존엄이 빛나고 민족의 번영이 있다는것을 실천

으로 증명해주고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혁명위업수행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여야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보장할수 있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은 민족번영의 확고한 담보이다. 조선민족이 강해지는 길은 조국통일에 있으며 이 길에 민족의 영원무궁한 번영이 있다.

주체성을 고수하는것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주체성을 고수하여야 조선민족이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책임을 다할수 있다.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내부문제로서 그 주인은 응당 조선민족자신이다. 그 누구도 조선민족이 통일되어 강해지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조국통일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조선민족이 주인이 되어 실현하여야 할 조선민족자체의 위업이다.

사대와 외세의존으로 나라가 대국들의 각축전장으로 되었던 력사의 쓰라린 교훈과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아보겠다고 만 국평화회의장에서 흘린 청원의 피는 조국통일문제는 조선민족자신이 주인이 되어 해결해야 할 자주적인 문제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외세가 반만년의 오랜 기간 하나의 강도에서 하나의 피출을 가지고 하나의 언어와 풍습으로 살아온 단일민족을 둘로 갈라놓은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참을수 없는 침해이고 우롱이다. 외세에 의하여 분열된 조국을 외세에 의존하여 통일하려는것은 민족의 운명을 침략자들에게 통채로 내맡기는 매국행위이며 외세의 지배와 간

섭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할수 없다.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주체성이 확고히 고수될 때만이 민족의 자주권을 지킬수 있고 민족최대의 속원을 성취할수 있다.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은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온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매개 민족에게는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공고화된 고유한 문화와 전통이 있다. 민족성을 고수하고 옹계 구현해나가야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민족공동의 위업,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할수 있다. 하나로 합쳐져야만 살고 둘로 갈라져서는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은 조선민족은 누구나 민족의 대단결을 간절히 념원하고있으며 이것은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해나갈 때만이 실현될수 있다. 조선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단일민족이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이 높고 단결력이 강한 민족이다.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성인 애국애족의 정신과 고유한 민족적기질은 온 민족의 대단결을 위한 사상적기초이다. 민족성을 고수하고 적극 살려나가야 조선민족이 애국, 애족, 애민의 리념과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하나로 굳게 단결할수 있으며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오던 분열의 력사를 끝장내고 민족번영의 새 시대를 펼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견지해오시었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굳건히 고수해나가계시는 주체성과 민족성은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민족의 번영을 담보해주고있다.

고성호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평양버섯공장, 평양자라공장, 삼천메기공장을 비롯한 국산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공장들에 가보면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자주 들을수 있다. 그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학부 자동화체계연구실 실장 정일철박사이다.

신기한 도술을 부리는 전설속의 홍길동이마냥 온 나라의 각지를 총횡무진하며

▶▶▶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

최첨단돌파의 명수 《홍길동》

조선로동당에서 제시한 최첨단 돌파전을 앞장에서 관철해나가는 실력있고 헌신적인 그를 가리켜 사람들은 《홍길동》이라고 부른다.

찾아가 40여일만에 첫 시험생산을 보장하고 통합생산체계를 도입하여 저들의 기술방조가 없이는 최신기술로 장비된 양조공정을 절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외국기술자들의 코대도 꺾어놓았다고 한다.

어딜 가나 들리는 이름

평양에서 남쪽으로 65km가량 가느라던 황해북도 도소제지인 사리원시가 나진다. 이 도시에 전국적으로 타올을 잘 짜는 공장으로 소문난 사리원대성타올공장이 자리잡고있다.

취재차로 사리원대성타올공장을 찾은 기자는 종전의 모습을 알아볼수 없을 정도로 현대적으로 변모된 공장의 모습에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공장의 기사장은 첨단기술을 받아들여 공장이 몰라보게 변모된데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지난 시기 (자카드) 직기에서 새로운 문양의 타올을 짜려면 기능공들이 달라붙어 도안을 그리고 채농중이에 무늬화를 한다음 문지친공을 하여 틀차림을 하는데만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공장 타올수건에 새겨진 인삼무늬가 20년세월이 흐르도록 달라지지 못하고 직기에 걸려있었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옛말이 되었다. 《홍길동》실장이 공장의 낡은 타올복직기들을 현대화하고 생산공정의 통합조종체계를 실현하여 이제는 수요자들의 요구에 따라 임의의

문양을 컴퓨터로 화상처리하여 직기에 전송하면 1시간내에 제품이 생산되어나온다고 기사장은 말하였다.

《《홍길동》실장선생이 이 공장에도 왔었지요?》라고 묻는 기자에게 기사장은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정일철실장이 국가적인 중요대상들의 현대화 실현을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있다고, 어느해인가 코대 높은 서방기술자들이 달라붙었다가 끝내 손놓고 나갔을 평양 어린이식료품공장 애기젓가루 생산공정조립과 시운전을 맡아 단 20일만에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정일철실장은 그에 그치지 않고 새 세기 표본공장으로 일떠서는 대동강맥주공장에

알고보니 함흥목제품공장에서 목재건조공정을 CNC화하여 생산을 수십배로 끌어올린데도,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사과말린편생산공정의 CNC화와 대동강돼지공장의 통합자동화체계를 완성한데도 정일철실장의 숨은 공로가 있었다.

연구중자를 잡아도 남들이 주저하고 생각지 못하는것을 잡고 일단 시작하면 통이 크고 시원하게 해결하는것이 정일철실장의 특기라는 기사장의 말을 들으니 꼭 그를 만나고싶은 충동이 굴뚝처럼 일었다.

하지만 홍길동처럼 각지를 주무잡잡 다니는 그를 만나다니는것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 그런 현대판 《홍길동》을 뜻밖에도 만날줄이야...

2016년의 최우수과학자

그날은 기자가 사리원대성타올공장에 다녀온지 달포가 지나서였다. 순천화학련합기업소를 찾은 기자는 새로 꾸린 아크릴계질감생산공정을 돌아보았다.

아크릴계질감생산공정으로 말하면 기술도입과 설비제작 및 운영이 극히 어려워 세계적으로 발전된 몇개 나라의 독점

물로 되고있었다. 더우기 아크릴산합성공정의 자동화는 프로필렌2단산화과정에서 일어날수 있는 폭발방지조종기술이 어려워 경제가 발전한 나라들에서도 자동화체계에 관한 기술을 독점국들에서 통채로 사다쓰고도 운영과정에 치명적인 폭발을 막을수 없는 것으로 공인되고있었다.



그렇듯 위험하고 어려운 아크릴계질감생산공정을 공화국의 과학자들이 자강력을 발휘하여 자체의 힘과 기술로 보란듯이 일떠세우고 도입시험에서 단번성공한 것이었다.

세계적 수준의 아크릴산합성 및 정류공정, 수성칠감생산공정, 유성칠감생산공정 등에서 질 좋은 칠감들이 팡팡 생산되어 나오는 광경을 흐뭇한 심정으로 바라보느라니 자강력이 이렇게 좋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뭉클 젖어들었다.

감탄을 련발하며 기자가 아크릴산합성공정이 한눈에 보이는 종합조종실에 들어섰을 때였다. 안내하던 일군이 한 사람을 가리키며 저 동무가 아크릴산합성공정의 자동화체계 시운전을 단번성공시킨 정일철실장이라고, 기업소에 불이 있어 왔다가 들린 참이라고 덧붙였다.

《아, 그렇습니까? 이곳에 와서 최첨단연구성과를 이룩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딜 가나 실장선생에 대한 이야기뿐인데 전설속의 홍길동이기도 왔다 울고가겠습니다.》

반가와 어쩔줄 몰라하는 기자에게 정일철실장은 별로 해

놓은 일이 없다고 겸손하게 말하였다.

늘 현장에서 살다싶이하며 현대화, 국산화실현을 위해 애



쓰고있는 흔적이 력력한 검실하게 탄 그의 얼굴에서 예지로 반짝이는 눈이 웃고있었다. 매력은 사람의 눈을 놀라게 하지만 재능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말이 있다.

공화국에서는 해마다 국내최우수과학자들을 선정발표하고 있는데 2016년의 첫번째 최우수과학자로 선정된 사람이 정일철실장이다.

기자는 과학자로서 크게 성공한 정일철실장이 못내 부럽기도 하고 존경이 가는 심정을 어쩔수 없었다.

누구나 선뜻 들어서기 힘든 과학탐구의 길에서 《홍길동》처럼 총횡무진하며 수많은 대상들의 현대화, 국산화실현에 이바지하고있는 그의 심장속에는 무엇이 자리잡고 있을까?

크나큰 믿음을 가슴깊이 새기고

《저에게는 그 어느 과학자에게도 없는 소중한 부름이 있습니다.

현대판 《홍길동》! 어버이장군님께서 정을 담아, 믿음을 담아 안겨주신 그 부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정일철실장이 격정에 젖어하는 말이였다. 지금도 그는 2010년 9월,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었던 영광의 그날을 잊지 못한다. 그날 자강도의 어느 한 공장을 찾으시여 통합조종실에 들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곳에 있던 정일철실장을 대번에 알아보시였다고 한다. 그러시고는 지난 6월 대동강과수종합농장 과일말린편공장에서 만났던 동무인데 오늘은 여기서 또 만난다고 몹시 반가와하시

며 동무는 현대판 《홍길동》이라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이날 오랜 시간에 걸쳐 그의 해설을 들어주시며 아주 잘 하였다고, 대단한 성과라고 높이 평가하시며 특별감사를 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 주신 장군님이시였다.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은 우리 힘으로 세계적인것을 창조하고 민족의 존엄과 기개를 떨칠수 있도록 적극 떠밀어준 지혜와 열정의 원천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순천화학련합기업소를 찾으신 그날 아크릴산합성공정의 첨단자동화기술을 우리 식으로 완성하여 몇개 나라의 독점물로 되어있던 력사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그의 해설을

만족하게 들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이라고, 이번에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또 큰일을 했다시며 당중앙위원회이름으로 감사를 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었다는것이였다.

예로부터 복은 쌓으로 오지 않는다 했건만 과학자들을 제일로 아끼고 내세우시는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그에게는 꿈만 같은 행복이 거듭차례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를 공화국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으로, 2.16과학기술상 수상자로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시였던것이다.

국가표창수여식장에서 돌아온 그날 정일철실장은 옷깃을 여미고 어버이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들앞에 섰다.

진정 한가슴에 받아안기에 너무도 벅찬 영광과 행복이 어떻게 온것이였는가. 민족의 자존심으로 세계를 딛고 오르라고 신념의 자양분을 주시고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시는 절세위인들의 아이로운 손길에서 꽃피운것이 아니던가.

어느 나라에서나 인재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 자랑으로 되고있다. 인재가 많은 나라는 빨리 부유해지고 인재를 귀중히 여기는 나라는 빨리 발전하게 되는것이다. 하기에 동서고금의 정치가, 사상가들은 인재가 노는 역할을 중시했고 인재와의 사업에 큰 의의를 부여했다.

하지만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값높은 삶을 누려가는 조선의 과학자들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이 세상 또 어디에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성공한 과학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찌 저 하나뿐이겠습니까.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에 떠받들려 우리 과학자들도 모두가 보람찬 과학탐구의 길을 걷고있습니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장군님 안겨주신 현대판 《홍길동》이라는 높은 부름을 영원히 안고 살렵니다.》

받아안은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에 더 큰 과학연구성과로 보답해갈 마음으로 심장을 뽐이는 그를 보니 감동이 컸다.

현대판 《홍길동》!

그 어떤 학위학직이나 명예에 비길바없이 소중한 그 부름을 심장에 간직하고 오늘도 정일철실장은 최첨단과학기술로 경제강국건설의 중요연구마다에서 애국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홍범식

기자: 지금 세계적으로 장애인자들이 늘어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적인 장애인자보호실태가 어떠한지 알고싶다.

리 광(조선장애인보호련맹 중앙위원회 부원): 얼마전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자수는 세계인구의 15%나 된다고 한다. 오래전부터 세계적으로 장애인들의 권리보장을 비롯하여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졌다.

유엔은 1982년 12월 3일 유엔총회 제37차회의에서 《장애인들과 관련한 세계행동계획》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1983년부터 1992년까지의 10년간을 《장애인들을 위한 유엔 10년대》로 선포하였다.

그리고 1992년 10월 유엔총회 제47차회의에서 매해 12월 3일을 《국제장애자의 날》로 제정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을 심도있게 벌려나가도록

장애자들에 대한 높아가는 사회적관심

하였다. 2006년 12월 유엔총회 제61차회의에서는 장애인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협약이 체결되었다.

유엔이 《국제장애자의 날》을 제정한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인식과 관심을 높이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며 장애인들이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오늘날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에 참여하기는 고사하고 갖은 수모와 학대를 받으며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침해당하고있다.

기자: 공화국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정책이 어떻게 실시되고있는가?

리 광: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후부터 시종일관하게 장애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이 보통사람들과 똑같은 사회정치적 권리를 향유하면서 국가와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을 보장해주고있다.

1948년 2월에 조선민주맹인 동맹 중앙위원회가 결성되어 자기 활동을 벌려왔으며 국가적으로 장애인들을 우대하고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법률적 및 제도적조치들을 취하고 여기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1998년에는 조선장애인보호련맹 중앙위원회가 조직되어 장애인자보호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고있으며 2003년 6월 18일에 채택되고 2013년 11월에 수정보충된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인자보호법》에 따라 장애인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원만히 보장해주고있다.

하여 우리 나라에서 장애인들은 모든 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진 룡아학교, 맹학교, 장애인자직업기능공학교를 비롯한 전문교육기관들에서 취미와 희망에 따라 여러가지 교육을 충분히 받고있다.

뿐만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룡양소들에서 무상으로 기능회복치료봉사를 받고있다. 2013년에는 평양에 현대적인 문수기능회복원이 일떠서 장애인들에게 종합적인 봉사를 제공하고있다.

기자: 장애인자보호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리 광: 2016년 11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장애인들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였다.

《장애인들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2006년 12월 13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2008년 5월 3일 발효되었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립법적 및 행정적조치들과 필요한 조건보장 등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2013년 7월 3일 《장애인들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서명하였으며 지난 3년간 읍씨버자격으로 협약과 관련한 활동에 적극 참가하였다.

현재 《장애인들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은 166개이며 이 협약은 아동권리협약 다음으로 가장 많은 나라들이 가입한 주요국제인권협약들중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협약에 기초하여 장애인들의 권리와 편의를 적극 도모하면서 국제적인 협조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있다.

2012년 영국에서 진행된 제14차 국제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와 2013년 말레이시아에서 진행된 제3차 아시아청년장애자경기대회 그리고 2015년 장애인자예술소조원들의 유럽방문공연들에서 우리 장애인들은 인간사랑의 따뜻한 대지에서 자래워온 훌륭한 기량과 재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오늘도 우리 장애인들은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시책속에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자기들의 재능과 희망을 마음껏 꽃피워가고있다.

미국은 참패의 운명을 피할수 없다

이 땅에 참혹한 전쟁의 불길이 타올랐던 그날로부터 67년의 세월이 흘렀다.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이 일으킨 조선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막대한 재난을 가져다주었으며 아물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

1945년 일제의 패망과 함께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는 조선반도를 저들의 세계제야망실현의 전초기지, 군사전략거점으로 만들 목적에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쳤다.

1950년 6월 25일 이른 새벽에는 새 조국건설로 들끓던 평화로운 공화국을 불의에 침공하였다.

지난 조선전쟁 3년간은 침략자이며 극악한 살인마인 아메리카식인종무리들의 진면모를 만천하에 드러내었다.

미국은 남조선과 추종국가들을 굶어모아 세계전쟁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전대미문의 조선민족대학살전쟁을 벌여놓았다.

《타치는대로 죽이라》, 《북조선을 재더미로 만들어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라》

이것이 당시 미국이 침략군대에 내린 전시명령이었다.

무고한 평화적주민들을

중세기적인 방법으로 가장 큰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을 주면서 잔인하게 학살한 미제살인귀들의 살륙만행은 히틀러도 무색케 할 반인륜적범죄행위였다.

뿐만아니라 국제법을 가차다주었으며 아물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

1945년 일제의 패망과 함께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는 조선반도를 저들의 세계제야망실현의 전초기지, 군사전략거점으로 만들 목적에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쳤다.

1950년 6월 25일 이른 새벽에는 새 조국건설로 들끓던 평화로운 공화국을 불의에 침공하였다.

지난 조선전쟁 3년간은 침략자이며 극악한 살인마인 아메리카식인종무리들의 진면모를 만천하에 드러내었다.

미국은 남조선과 추종국가들을 굶어모아 세계전쟁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전대미문의 조선민족대학살전쟁을 벌여놓았다.

《타치는대로 죽이라》, 《북조선을 재더미로 만들어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라》

이것이 당시 미국이 침략군대에 내린 전시명령이었다.

무고한 평화적주민들을

에 굳게 봉친 영웅적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세게면전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대참패를 당하게 되었다.

전쟁의 포화가 멎은지도 6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다.

정전협정이 조인된 그날로부터 미국과 그에 편승한 남조선호전파들의 도발책동이 어느 한시도 중단된적이 없었기때문이다.

미국은 해마다 수많은 침략무력과 핵무기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남조선호전세력과 야합하여 하늘과 땅, 바다에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 북침전쟁연습을 벌려놓아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조성하여왔다.

최근에도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를 걸고들며 이례적으로 조선반도수역에 2개의 핵항공모함타격단을 끌어들이고서 《B-1B》 핵전략폭격기와 《사이언》호를 편이여 들이밀고 전쟁전야에만 있는 미국민간인소개훈련까지 벌리었다.

그러나 미국은 오판하고있다.

지나온 조미대결에서 미국이 패배의 역사만을 기록해온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며 역사의 응당한 판결이다.

1950년대에 청소한 공

화국앞에 무릎을 꿇었던 미국은 두눈을 똑바로 뜨고 오늘날 저들이 맞고 있는 상대를 바로 보아야 한다.

수십년에 걸치는 미국의 핵위협은 오늘날의 공화국을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존엄높은 핵강국, 로켓핵무기국으로 만드는 역효과를 가져왔으며 공화국의 군사적위력은 1950년대에 비할바없이 강해졌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세계제야망실현에 환장하여 미친듯이 발광하는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의 몰골은 제 죽을줄모르고 날뛰는 부나비를 연상시킨다.

만일 침략자들의 무모한 군사적도발로 인해 조선반도에서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우리 민족은 쌓이고쌓인 원한과 복수를 담아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눈도 없게 침략의 무리들을 영영 쓸어버리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황진옥

시 천미굴종의 광대극

김 송 립

천미에 쩌들고 사대에 미친 패당들 또다시 해피한 늙음 벌려놓았구나 미군 2사단 창설 100주년이라 《기념》음악회, 《퇴역미군남조선 관광》

《한미우호》 상징조형물제작식...

말만 들어도 민족이 치를 떠는 미제침략군 2사단 물어보자 남녘의 겨레여 악귀의 그 무리들 지난 50여년 저지른 그 만행 《찬양》 받을 일이 더나

동두천의 무고한 한 녀인을 시퍼런 대낮에 사발하고 온몸에 뺨끼칠새 내쫓은 야만들 수많은 녀인들 룬간해 무참히 살해한 그 끔찍한 피의 행적 어찌 잊으랴

지금도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호순이, 미선을 깔아몽겐 그 살인귀도 바로 미2사단의 악마 미군2사단은 그대로 살인마, 악마의 대명사

호순이, 미선이 흘린 피가 복수의 응어리되어 맺힌 그날에 《52년간의 우정》, 《환송》을 부르겠으며 오허려 살인마 미제를 개어올리는 천미사대역적들의 역겨운 추태

손을 꼽아도 다 못 꼽을 미제의 피비린 그 만행 백배천배로 갚아도 못 다 풀릴 한이 건만 피뢰역적들의 천미굴종의 광대극에 온 겨레가 분노의 피를 끓인다

민족적수치도 모르는 이런 사대매국노들의 광대극들이 백주에 버젓이 감행되기에 어느 한시인들 가실 날 있으랴 남녘겨레의 불행과 고통 가슴찡기는 아픔이

살인마 미제 남녘에 도사리고있는 한 천미사대역적들이 있는 한 불행과 고통은 끝이 없으려니 민족이 살길은 하나 천미굴종에 준엄한 심판 내리는 길뿐이다

미국에 매달릴수록 굴종이 심화된다

최근 남조선당국이 28일부터 예정된 집권자의 미국행각을 앞두고 《한미동맹강화》를 구걸하며 비굴한 추태를 부리고있다.

며칠전 미국무성 정무차관을 끌어들여 《정상회담》의제라는것을 논의한 남조선당국은 이번 행각에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한차원 높은 한미동맹강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떠들어댔다. 그런가하면 남조선당국자가 직접 나서서 《(대북정책)을 비롯한 주요현안에 대한 한미공조와 광공간 우호협력관계강화》를 실천하고 그 수하의 당국자들도 《한미동맹은 외교안보의 근간》이라느니, 《싸드배치는 한미동맹차원에서 결정할것》이니 튀니 하며 미국상전의 비위를 맞추는데 극성을 부리고있다.

참으로 민족의 자존심이 허용치 않는 비굴한 추태가 아닐수 없다.

미국남조선동맹이란 상전과 주주사이의 예측과 굴종의 동맹, 전쟁동맹에 다른것이 아니다.

미국과 남조선사이의

《동맹관계의 기초》라고 하는 미국남조선 《호상방위조약》이라는것부터가 남조선의 영위한 식민지, 군사기지로 선포한 이 세상 가장 굴욕적이고 예측적이며 침략적인 조약이다. 미국남조선 《호상방위조약》은 남조선의 전지역 그 어디를 막론하고 미국의 육, 해, 공군을 배치할수 있는 권리를 미국에 부여하고있으며 《본 조약은 무기규정함으로써 미군의 남조선 영구강점을 《합법화》하였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도 미군주둔조약들을 맺고있지만 이와 같은 최악의 불평등조약, 예측적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미국 남조선 《행정협정》으로 미국은 남조선에서 살인, 강간, 약탈, 파괴 등 온갖 범죄를 거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남조선은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남조선군에 대한 통수권까지 거머쥔 미국과 상전의 승인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하수인들사이에는 오직 지휘와 복종, 명령과 집행 밖에 있을수가 없다.

남조선의 한 교수도 《(한국)을 주권적독립국으로 믿고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한국)은 미합중군대에 예속된 무주권국이다. (한국)은 령토까지 미국에 장악당하고있는 식민지에속국이 다.》라고 신랄히 조소하였다.

《한미동맹강화》란 결국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배와 예측의 심화이며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미국의 리익과 요구에 철저히 복종시키는 치욕스러운 결과밖에 초래할것이 없다.

남조선당국이 아무리 미국남조선동맹을 명줄처럼 여기면서 요란히 광고해도 미국은 남조선을 한갓 식민지노복외박에 여기지 않는다. 미국에 있어서 《한미동맹》이란 남조선을 식민지로 계속 틀어쥐고 지배와 예측을 강화하며 저들의 하수인들을 침략과 전쟁의 돌격대로 내몰기 위한 한갓 허울이요 도구에 불과할 따름이다.

미국남조선동맹이 강화될수록 남조선은 미국의 군사적지배와 예측의 울가미를 더 바짝 졸라매고 나중에는 핵참화를 들쓰는 비참한 자멸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조국통일의 최방군인 미국과의 동맹은 민족분열동맹이며 그 강화는 조국통일문제를 더욱더 외세에게 내맡기는 반민족적피악을 덧쌓는것으로 된다.

지금 남조선민심은 당국이 천미사대의 늪에서 벗어나 외세의존의 늪은 아습을 털어버리고 반민족적인 대미추종정책과 결별할것을 요구해나서고 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외세의존으로 모든것을 풀수 있다는 어리석은 환상에서 벗어나야 하며 마땅히 선입자들의 비참한 말로써 교훈을 찾아야 한다.

본사기자 최광혁

탄평 기막힌 모임

최근 남조선에서 조선전쟁발발 67년을 맞으며 지난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고용병렬거지들을 초청하는 늙음을 벌리었다.

까마귀도 배를 그러쥐고 웃을 회비국이 아닐수 없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청소한 공화국을 없애버릴 침략의 흉심으로 기여들었다가 된배를 맞고 겨우 목숨을 건진 늙다리산송장들을 다시 끌어들이었으니 말이다.

이번에 남조선에 기여드는자들속에는 장진호반의 얼음구멍이에서 동태귀신이 뿔뿔하였던자도 있다고 한다.

그자를 비롯하여 지난 1950년대에 조선인민을 잘못알고 건드렸다가 응당한 징벌을 받은자들은 아직도 그때의 악몽에서 허덕이고있을것이다.

문제는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이는 이러한 산송장들을 끌어들여 《례의》니, 《감사》니 하며 추태를 부려대는 남조선당국의 온당치 못한 처사이다.

여기에는 민족이 저주하는 침략자들

을 한사코 끌어들여 《은인》으로 내세워 지난 조선전쟁의 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기여이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고 저들의 비렬한 동족대결야망을 기여이 실현해보려는 흑심이 깔려있다.

하지만 제 민족의 머리우에 한사코 불을 지르려는 전쟁미친개들이 운명은 1950년대의 침략자들의 비참한 몰골과 다를바 없을것이다.

갈수록 더욱 강해지고 공고해지는 공화국의 막강한 군력과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멸적의 의지가 이를 립중해두고있다.

전쟁이 된지도 모르고 날뛰는 남조선호전파들은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산송장들이다.

그러니 먼저 쓴맛을 본 선대송장들이 물불을 모르고 헤뽀미다가 송장이 될 후대들에게 귀맛좋은 《축복》의 장송곡을 불러주는 기막힌 모임이 될것은 불보듯 뻔하다.

본사기자 리철민

또한 남조선군부는 얼마전 《한국형미싸일방어체계》의 핵심이라는 증거리치상대공중미싸일 《M-SAM》의 개발완료를 선포한데 이어 유사사부의 핵심목표물들의 정

를 하루빨리 개선할것을 간절히 바라고있다. 그런데 남조선군부호전파들은 거꾸로 군사적대결에 매달리면서 전쟁광기만 부리고있으니 이것은 겨레의 녀민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 아닐수 없다.

대화와 전쟁소동은 절대로 량립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동족과의 관계에서 립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대화와 관계개선이냐 아니면 대결과 전쟁소동이나.

남조선당국이 온 겨레의 평화와 통일지향에 역행하여 외세와 함께 군사적대결소동에 계속 광분하다가는 이 세상 가장 무자비한 타격을 처참한 과멸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본사기자 김철민

미국의 횡포를 반대하여 투쟁할것을 선언

남조선인 터네 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싸드》배치저지전국행동이 미국무성 차관이라는 자가 남조선에 기여드것과 관련하여 14일 피뢰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싸드》배치와 관련한 모든 행동을 즉시 중단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단체는 《싸드》배치가 《한미동맹의 결절》이라고 하면서 배치를 강요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단체는 《싸드》배치를 강요하는 미국의 일방적인 횡포와 이를 굴욕적

으로 받아들이는 현 《정부》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단체는 또한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대화나, 전쟁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군부호전파들은 미국의 전략폭격기편대들을 계속 끌어들이면서 정세를 악화일로에 몰아가고있다.

지난달에도 《B-1B》 전략폭격기가 조선반도상공에 2차에 걸쳐 날아들었다. 지금은 《B-1B》 전략폭격기의 훈련일정을 미리 언론에 공개하면서 소위 《군사적압박》의 도수를 높이며 무분별하게 날뛰고있다.

확한 지형과 영상정보를 전문수집하는 《지리공간정보지령부》를 내오겠다 고 객기를 부리고있다.

보는것처럼 남조선당국은 입으로는 《대화》를 떠들고 행동은 그와 정반대로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고있다. 대화와 전쟁소동은 량립될수 없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고 북남관계

한 지형과 영상정보를 전문수집하는 《지리공간정보지령부》를 내오겠다 고 객기를 부리고있다.

보는것처럼 남조선당국은 입으로는 《대화》를 떠들고 행동은 그와 정반대로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고있다. 대화와 전쟁소동은 량립될수 없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고 북남관계



반인권적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꾀변

남조선당국이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한 죄로 체포되었다가 송환된 미국공민 왓비어의 죽음과 패를 같이하여 그 무슨 《역류자송환》을 들고나 오면서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벌이고있다.

지난 20일 남조선당국은 외교부 대변인을 내세워 《깊은 애도를 표시》한다느니, 《미국정부에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느니, 《북에 억류중인 우리 국민과 미국인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한다느니 뛰니 하는 나발을 불어대게 하였다.

남조선통일부도 《북에 억류되어있는 6명의 안위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지만 북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들중 일부는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우려를 키우고있다.》, 《6명의 송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떠들어댔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그 무슨 《만행규탄》이니 뛰니 하며 반공화국적대감을 악랄하게 고취하고 있다.

현 남조선당국과 보수 패거리들의 이러한 대결 망동들은 왓비어의 죽음을 법석 떠들어대며 미국 상전의 비위를 발라맞추는 것과 함께 국제무대에서 공화국의 영상을 흐려 놓고 그 무슨 《역류자》문제를 부각시켜 저들의 반인권적책동을 합리화하려는 불순한 기도가 깔려 있다.

공화국에 대한 특대형 범죄를 감행하다가 체포되어 법적처벌을 받은 범죄자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느니, 《송환》이니 뛰니 하고 떠들어대 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

며 파렴치한 도발이 아닐 수 없다. 이자들로 말하면 공화국에 대한 저들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공화국형법에 따라 응당한 형벌을 받은 자들이다.

이들에 대한 《송환》을 운운하는 것은 존엄높은 공화국의 형법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라 해야 할 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인도주의》에 관심이 있다면 강제유인람치 해간 12명의 공화국공민들과 김련희녀성부터 본인들의 요구대로 공화국의 품에 돌려보내야 할 것이다.

얼마전에도 남조선정보 모략기관들의 꼬임에 속아 몇해전에 남조선으로 끌려간 권철남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지옥같은 세상에서 더는 못살겠다, 북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절규한 것을 비롯하여 지금 남

조선에서는 강제로 끌려간 수많은 공화국의 주민들이 조국으로의 송환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공화국이 수차에 걸쳐 결처벌을 받아와 같이 공화국 주민들에 대한 송환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리산가족상봉》을 비롯하여 북남간의 일체 인도주의 협력사업이 이루어질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역류》느니, 《송환》이니 하는 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강제로 억류하고있는 공화국의 공민들부터 지체없이 돌려보내는데가 마땅하다.

본사기자 서명수

초불민심의 요구를 실현할 때

남조선에서 새 《정권》이 들어선지도 퍼그나 흘렀다.

이번에 《대통령》선거를 통해 9년만에 《정권》교체가 실현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 될수 있는것은 광범한 남조선인들이 참가한 초불투쟁의 결과였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모든것이 다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다. 문제는 초불민심의 요구가 얼마나 정확히 실현되는가 하는데 있다.

민주화된 새 정치, 새 생활, 온갖 적폐를 청산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할것을 남조선민심은 요구하고있

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정국주도권과 재집권담보에 대해 떠들면서 그 중요한 전제인 《적폐청산》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있다.

북남관계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쪽으로는 《대화》를 표방하면서도 외세의 반공화국적책동에 동조하면서 《제재와 대화》를 병행 추진하는 것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것이라고 하고있다. 경제협력도 핵문제와 관련한 《북의 태도변화 등 여건이 마련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형편이다.

를 맞추면서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 핵무력강화조치를 걸고드는것이 북남관계개선은 도저히 거리가 멀고 또 민심의 요구와 어긋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집권자들이 이렇듯 어정쩡한 태도로 선임자들의 뒤나 알아간다면 대결과 정책변에 미처달뉘다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박근혜 《정권》과 같은 운명을 답습할수밖에 없다.

초불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파멸시키고 새 《정권》을 탄생시킨 남조선민심은 지금 한결같이 《적폐청산》과 북남관계개선을 요구하고있다.

본사기자 김련옥

권력정탈에 환장한 시정배들의 추태

지난 《대통령》선거 이후 초상질처럼 되어버린 《자유한국당》의 내부가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더욱 소란스러워지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자유한국당》내에서는 《대선》후보로 나섰던 홍준표패거리들과 당지도부, 친박근혜파와 비박근혜파가 《대선》패배책임을 둘러싸고 《친박이 죽음의 구덩이를 파놓았다.》, 《홍준표가 대선을 망쳤다.》, 《뒤통수를 빼개 치워야 한다.》는 등 적의가 서린 폭언까지 퍼부으며 서로 미친개들처럼 물고뜯는 퍼터지는 싸움을 벌여놓았다.

그러나 하면 당지지를 이 견줄수 없이 폭락하는데 대해 저마끔 《보수색채강화》니, 《보수대개혁》이니, 《신보수주의》니 하며 저저마다 《당채신》안을 내세우는 바람에 내부분열은 더욱 가속화되고있다.

《자유한국당》의 집안싸움은 얼핏 보기에는 선거패배에서 교훈을 찾고 위기에 처한 당을 살려보려는 몸부림인듯 보이지만 내막을 파헤치면 추악하기 그지없는 권력

싸움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이 떠드는 《당채신》이란 오로지 리해관계가 대립되는 계파들을 물어메칠 속궁냥으로부터 탈출한 기만적주호일뿐이다.

《채신》의 명분을 내걸고 이번 기회에 지금껏 대립해온 적수들을 제깎으로써 이제 있게 될 전당대회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자하는것이 《자유한국당》 정치간상배들의 본심인것이다.

실지로 지금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각 계파들은 서로 상대방을 물고뜯어지며 당권경쟁과 세력권확장에 퍼논이 되어 날뛰고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대패패를 당하고 미국으로 뺄소니를 쳤던 홍준표가 남조선으로 귀환하였다.

남조선의 여론들과 분석가들은 미국으로 갔던 홍준표가 23일만에 남조선에 급히 날아들어온것은 당권도전을 위해서라고 평하고있다.

이를 실증해주기라도 하듯 지난 18일 홍준표는 당지도부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출마를 공식선언하는

자리에서 친박계를 《보수를 궤멸시킨 장본인》으로 낙인하면서 친박청산에 대해 떠들어댔다.

이후 선거유세마당에서도 친박계와 현 당상층부의 친분을 빚대며 자기만이 당대표가 될수 있다고 로 골적으로 들고나왔다.

이에 대해 당대표출마를 선언한 한 비박계의 인물은 홍준표가 당권장악을 위해 《친박을 먹이감으로 활용하고있다.》고 비난해나서며 그를 《보수의 낯은 얼굴》, 《대선에서 2등으로 참패한 사람》이라고 비꼬았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제일 고민하고 바빠하는것은 친박계이다. 그동안 박근혜를 등에 업고 당을 쥐락펴락해온 친박계는 탄핵사태 이후 당내에서 《2선후퇴》압박을 받고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위기감이 큰것만큼 다시 당권을 장악하여 솟아나보려는 친박계의 욕망과 발악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다.

친박계는 《선거패배의 책임은 홍준표》에게 있다고 비난하는 한편 《만약 그가 당대표가 된다면 당전체에 아주 불행한

일》이라고 그의 당권도전에 경계감을 표시해나서고있다.

친박계의 한 인물은 이번 당권경쟁을 《친박대홍준표》가 아니라 《친홍대 반홍의 대결》로 규정하면서 홍준표의 당권도전을 맞아아칠 립장을 표명하였다.

현재 당대표권한을 행사하고있는 원내대표 정우택은 《대선에서 당선되지 않으면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던 홍준표의 발언내용을 공개하며 《거짓말쟁이인 그는 당대표로 될수 없다.》고 반기를 들고나왔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선거패배이후 조성된 위기를 수습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의 주도권정탈을 위한 집안싸움을 더욱 격화시킬수 있다고 평하고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하루하루 벌어지고 있는 개싸움은 날로 민심을 잃고 궁지에 몰려 파멸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고있는 반역패당의 가련한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류현철



남조선에서 현 《정부》가 보수야당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외교부장관임명을 단행한것을 계기로 청와대와 보수야당들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한층 격화되고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대참패를 당한 후 여당으로부터 야당으로 굴러떨어진 《자유한국당》은 위기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로를 대 《정부》공세에서 찾으려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인사문제와 각종 개혁법안처리에 제동을 거는 등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당기고있다.

한편 보수패거리들은 현 《정권》에 의해 《좌파광풍시대》가 도래할수 있다느니, 보수세력이 《피멸될 위기에 처했다.》느니, 《각성해야 한다.》느니 하고 선동하는가 하면 당국자의 《대북정책》과 《안보관》을 시비하고 집요하게 걸고들면서 케케묵은 《종북》소동에 또다시 매달리고 있다.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짓밟으며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들을 저질러온 보수패당이 파멸의 함정에

서 헤어나보려고 발광하고있는것은 실로 가중스럽기 그지없다. 그것은 그대로 새 정치, 새 생활을 바라는 초불민심에 대한 도전이며 《대선》패배로 궁지에 몰린 자들의 비렬한 앙탈질이 아닐수 없다.

《자유한국당》으로 말하면 특등범죄자인 박근혜와 함께 이미전에 청산되어야 할 반역정치와 부정부패의 총본산이다.

박근혜역도가 《비선실세》들을 기고 《국정》통단과 부정부패범죄를 일삼는것을 뻔히 알면서 대 그를 묵인조장한것도 《자유한국당》이며 최순실과 그 족속들이 박근혜를 인형처럼 조종하며 제멋대로 날치는데 대해 모르쇠를 하여 남조선의 정국혼란을 부추긴것도 이 당패거리들이다.

박근혜, 최순실사건이 여론화되어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어나고있는데도 《량설》이라느니, 《터무니없는 소리》라느니 하고 사태를 덮어버리기 위해 발악하고 그것이 확대되어 분노의 초불바다가 펼쳐졌을 때에는 그 누구의 《배후조종을 받은 정치선동》으로 모두들 하는 망발을 늘어놓으며 역도년의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에 한사코 역행해나선 《자유한국당》것들의 망동은 오늘도 남조선인민들의 피를 끓게 하고 있다.

사실상 박근혜역도가 집권기간 저지른 만가지 최악은 《자유한국당》과 공모결탁하여 빚어낸 것이다.

본사기자 현은경

반박의 표적이야 퍼져있고 방화당

민심의 심판대에서 벗어날수 없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감옥에 처박힌 박근혜역도가 재판장에서 부리는 추태가 가관이다.

그 어떤 동정이나 자비를 배려서인지 재판장에 끌려나오는 회수가 많아질수록 더욱더 초췌해지는 모습으로 심판대에 등장하는 박근혜는 자루속 송곳처럼 여지없이 탄로된 각종 죄악들에 대해서 《모른다.》, 《지시한적이 없다.》, 《역지주장이다.》라는 식으로 시침을 메고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년의 변호비용을 받는 변호인이라는자들은 그 값을 하려는지 검찰과 특검이 제기한 범죄 혐의들을 전면 부인하였는가 하면 《피고인이기 전에 고령의 연약한 여자》이라느니, 《건강이 악화》되었다느니 뛰니하며 실정을 요구해나서기도 하고 있다. 지어는 《재판이 고고어져도 상관없다.》, 《일본의 《록키드 마틴》 사건 1심재판은 7년이나 걸

렸다.》고 뇌까리며 430여 명이 말하는 중인들의 말을 다 들어보아야 한다고 생억지까지 부리고있다.

인간오작품들이 부리는 생억지이고 파렴치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박근혜역도가 집권수년간 저지른 죄악은 도저히 용서받을수 없는 만고최악이다. 하기에 그는 민심의 웅대한 탄핵판결을 받고 법정무대에까지 서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물만 한 죄의식도 없이 모든 죄는 줄개들에게 밀어버리고 자기는 살아남아보겠다고 재판장에서 별의별 오그말수를 다 쓰는 박근혜야말로 인간의 초보적인 량심과 감정도 없는 한갓 추물이라 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역도와 그 추종자들이 부리는 역겨운 추태를 두고 지금 남조선인론들과 각계층이 《일본의 《록키드》 사건때처럼 최대한 시간을 끌어 재판을 호지부지하게 만들기 위한것》, 《우선은 1심 구속기한이 끝나는 10월

중순이후까지 재판을 끌고가 구치소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술책》이라고 격분해하면서 역도의 오그말수에 말려들지 말고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여 무기징역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박근혜역도가 권력을 쥐고 독기를 내뿜던 그 기상을 탄핵과 함께 청와대뒤산에 물어버리고 어떻게 해서나 간들거리는 잔명을 연장해보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지만 기울어진 운명을 돌려세울수는 없는것이다.

죄와 벌은 한술기에서 자란다고 박근혜역도가 민심의 심판을 피해보겠다고 날뛰면 날뛸수록 그것은 제 목에 걸린 울가미를 더욱더 조이는것으로만 될뿐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 즐거움과 랑만을 주는 보통강 ◎

최근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에 종합적인 체육촌이 훌륭히 일떠섰다. 수양버들이 실실이 늘어져 흐느적이는 보통강의 아름다운 경치와 한껏 어울려 한쪽의 그림처럼 안겨오는 어머니섬에 방대한 면적의 종합체육관과 체육인숙소, 인공잔디축구장, 야외통구장, 배구장, 정구장, 수상화초공원 등이 그뿐이 갖추어진 종합적인 체육촌은 볼수록 장관을 이루고있다.

돌이켜보면 대동강의 지류인 보통강은 온갖 꽃들이 피어나고 나무들이 무성하였지만 해방전에는 《재난의 강》, 《원한의 강》, 《눈물의 강》으로 불려왔다. 치산치수를

하지 않아 년년이 보통강물이 범람하여 이 일대의 사람들이 큰물피해를 당하였기때문이다.

1942년 한해에만도 큰물로 하여 5만여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2 000여정보의 농경지가 류실되었으며 1 000여호의 농가가 침수되는 참사가 벌어졌다.

가뜩이나 보통벌사람들이 사는 곳을 가리켜 거지촌, 빈민굴이라고 불렀는데 수해까지 겹치면 토성량과 서평양일대, 대타령지구는 말그대로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하곤 했다.

조국의 산수를 노래하고 평양의 풍치를 노래한 옛 시집들에서 보통강

에 대한 시 한수 찾아보기 힘든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그러던 보통강반이 오늘은 인민사랑의 정치아래 옛 토성량의 흔적조차 찾아볼수 없게 천지개벽되었다.

해방전에는 큰 거리라고는 없던 보통강기슭에 천리마거리, 경흥거리, 비로한 거리, 거지촌, 인민문화궁전, 평양체육관, 창광원, 빙상관, 청류관 등 문화후생시설들과 체육문화활동기지들이 즐비하게 일떠섰다.

보통강반의 여기저기에는 유원지, 공원들과 배트장, 그물우리양어장, 수영장들이 생겨났다.

보통강반에 오늘은 평양시민들의 체육문화생활에 이바지할 종합적인 체육촌이 새로 꾸러져 기쁨과 랑만을 더해 주고있다.

요즘 한낮의 더위를 피해 푸른 물 출렁이는 보통강반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있다.

보통강물우에서는 배놀이가 한창이고 신서교로부터 팔골다리에 이르는 유보도에는 낚시질풍경이 이채를 띠고있다.

공원과 유원지들은 산책을 즐기는 근로자들과 유희오락이나 체육운동으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남녀노소들로 흥성이고있다.

본사기자

료리맛에 편위기 또한 좋아

평양의 광복거리에 자리잡고있는 광복지구상업중심으로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이곳 상업중심에서도 특색있는 봉사를 하고있는 3층식당은 언제 보나 많은 손님들로 흥성이고 있다.

오붓하게 모여앉아 웃음꽃을 피워가는 가족들, 이미전부터 잘 아는 사이인듯 봉사원들과 친절하게 인사를 나누는 손님들...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다반들을 들고 구미에 맞는 음식들을 고르는 손님들, 갖가지 요리들과 청량음료를 봉사하느라 부지런히 손을 놀리는 봉사원들의 모습도 보인다.

천수백명을 한번에 봉사할수 있는 드넓은 식당

본사기자

안의 좌석들은 봉사를 시작하기 바쁘게 손님들로 꽉 들어찬다.

중구역 중성동에서 왔다는 리옥순녀성은 갖가지 맛있는 요리들을 봉사하는 이 식당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하였고 만경대구역 갈림길1동에서 사는 리철식로인은 광복지구상업중심에 오면 3층식당에 꼭 올라오게 된다고 하면서 요리맛도 좋고 어느때나 손님들로 흥성이는 분위기도 마음에 든다며 웃었다.

광복지구상업중심의 봉사일군은 매일 2 000~3 000여명의 손님들이 3층식당을 찾곤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곳 식당이 인기를 끄는 비결은 료리의 가지수와 질, 신속하고 친절찬 봉사에 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식당에서는 매일 수백가지의 료리들을 나무랄데없이 만들어 손님들에게 봉사하고있다.

이렇듯 많은 종류의 료리를 매일 봉사한다는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

지만 이곳 식당에서는 인민의 봉사자된 긍지를 안고 손님들의 구미에 맞게 새 료리들을 만들어내는 것과 함께 료리평평회도 자주 조직하여 료리의 질을 부단히 높여가고있다.

이곳 식당에서 만드는 평양랭면과 오리보양구이, 매운즙친 보가지튀기는 손님들이 많이 찾는 인기 료리들이다.

이들은 손님들이 많이 찾는 료리들을 봉사원이 마이크를 주방에 알려주어 손님들과 봉사원들간에 호응을 맞추고있다.

이곳 봉사자들은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고 료리의 가지수를 늘이고 그 맛과 질을 부단히 개선하기 위해 애쓰고있다.

그들의 노력과 열정은 《초만원》이라는 말과 더불어 식당을 찾는 평양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본사기자 홍영미

물을 하루에 8고뿌 마시면 좋다. 하루에 물을 3고뿌 마시면 항시적으로 코가 메고 목이 아플수 있는 위험성이 5배나 커지며 2고뿌만정도의 물밖에 안마시면 감기에 걸릴수 있는 위험성이 3배로 커진다.

물과 질병 치료

점막이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젖어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량의 수분을 섭취하여야 한다.

점막은 파리를 잡는 점

확실했다.

수양대군의 눈박에 나서 가문이 망하였으니 십분 그럴수가 있는것이였다.

경위는 비록 다름말정 숨어사는데서는 시습이 자기와 별반 다를바 없는 처지인것이다.

학재는 시습을 끌고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조용한 구석에 마주앉았다.

사화 병풍에 담긴 조소 (2)

글 신창섭, 그림 박봉혁

그후 그는 나이 예순이 되도록 벼슬길에 한번도 나서지 않았다.

나라정사보다 사리사욕으로 서로 물고뜯고하는 어지러운 벼슬살이가 싫었고 또한 스승들과의 의리를 버릴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만큼 한명회일대에 대한 마음이 뼈속깊이 가득찬 시습이였다.

김시습이 인간세상사를 다 잊고 산속에 불박혀사는 중들의 세계에 싯뼉 발을 들여놓은것은 실상 하고싶어하는 노릇은 결코 아니였다. 그것은 세조의 무지하고 포악스런 행위로 고광지신인 좌의정 김종서와 세종왕과 문종왕의 고명을 받은 집현전의 학자들이 무리로 죽어나갈 때 그제서야 세상살이의 어지러움을 더더욱 깊이있게 깨달았기때문이었다.

시습은 인왕산, 목멱산 등 여기저기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이곳에서 있는 사찰에 머물며 어느 정도 불교의 교리를 터득할수 있었다. 시습이 장삼자락을 펴리며 샅갓에 바랑까지 지고 나설때면 제법 불도에 도통한 스님같아보이였다.

떠돌이노릇 여러해에 돌아가는 세상형편에 눈이 트이게 되자 시습의 가슴에는 《나라님네》들이하는 조정정사에 대한 환멸과 조소만 가득가득 차오를뿐이였다.

방랑생활로 떠돌이하던 그가 한양근처의 어김종서와 세종왕과 문종왕의 고명을 받은 집현전의 학자들이 무리로 죽어나갈 때 그제서야 세상살이의 어지러움을 더더욱 깊이있게 깨달았기때문이었다.

《이제 형님이 아니시우?》

자기를 알아보고 찾는

소리에 시습은 깜짝 놀랐다. 수양대군시절에 폐족을 당하고 죽은줄로만 알았던 어릴적의 막역한 친구였던 학재였던것이다.

《임자 학재가 아닌가? 이게 얼마만인가?》

한살아래인 학재는 시습과 아이적부터 함께 글공부를 하며 자랐었다.

《형님, 조용하오. 누가 들겠소.》

시습이 반가와하는 말에 학재는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대며 주막안을 둘러본거렸다. 시습은 그제서야 새삼스레 그의 행색에 눈길을 가져갔다. 아무리 이리저리 뜯어봐야 이진 분명히 자기의 본색을 감추고 사는 사람의 행색이 틀림없었다.

랑방가문의 자식의 체모는 찾아볼래야 볼수가 없었다. 밥술이나 이어대며 떠돌아다니는 자세가



시습이 말하는 인생사를 다 듣고난 학재는 눈살을 찌프렸다.

《그러니 형님도 그 한명회란 랑방때문에 이렇게 된셈이구려.》

조정에서 벼슬을 하던 학재의 부친은 한명회의 모함에 걸린 무리에 끼워 억울하게도 수양대군의 살생부에 올라 목숨을 잃게 되었다.

가장이 통지처참을 당한 까닭에 이 집안은 폐족을 당하였는데 다행히도 그때에 집에 없었던 학재만 겨우 목숨을 건질수가

있었다. 그는 이내 제 이름 석자를 숨기고 금전행상에 나섰던것이다.

학재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습은 여기에 대한 동정심이 북받쳐오르는것을

가까스로 억제하였다. 침침한 분위기를 가시려는듯 학재가 얼른 말머리를 돌리였다.

《헌데 스님두 주막집에 다니시우?》

《스님의 입은 입이 아니라던가? 세상이 뒤집힌 판에 스님이라고 불도를 지키셨나. 허허.》

시습의 말에 학재는 잘 모르겠다는듯 머리를 흔들었다.

《그런데 주막안의 길손들은 누구들인가?》

시습은 학재가 여러 사 랑들과 같이 주막안에 들어서던것이 생각나서 물었다.

《나의 동행짜페들이요. 내 이래비두 한양상인들은 물론이구 외국교역에도 줄이 잡혀 그만하면 별이가 괜찮소.》

《허, 괜찮은걸. 그게 노릇이 재미있나?》

《재미있따마다요.》

《어떻게?》

호기심이 동하여 묻는 시습의 말에 학재는 다짐조로 말뚝지를 떼였다.

《이제 얘기하는걸 잘

대 말하면 안되우. 실은 그 한명회란 랑방을 골탕먹인 일이요.》

학재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며칠전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나라의 실권을 틀어쥔 한명회에게 그를 통해 한 문 보려는자들이 구름처럼 늘어선것은 물론이구 그뒤에 따르는 퇴물 또한 금은보석들로 가득하였다.

어느날 학재는 병풍 하나를 정히 싸가지고 한명회의 집 붉은 대문을 팡팡 두드렸다.

신통히도 제 상전을 닦아 편안치 않은 상통을 한 하인이 대문을 열며 눈살을 찌프리자 학재가 그에게 찾아온 사연을 말하였다.

하인의 전갈을 들은 한명회는 시답지 않은듯 《별놈 다 보겠군.》하며 흠뻑해하더니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럼 어디 한번 봐줘?》 하며 장사군을 불러들이도록 하였다.